

어린이

윤 제 철(시인)

나이가 적은 아이만
어린이가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잘 추스르지 못하면
어른이 아닌 어린이다
나이가 적어도
할 일을 알아서 해내면
어른처럼 보인다
어른이 없는 집에 어린이는
너무 빨리 웃자라
어린이를 빼앗겨 버린다
어린이도록 보호해야
누릴 권리를 지킨다

나이가 적은 아이가 어린이다. 어른이 다 자란 사람이라면 사리판단이 온전한 사람인데 어린이 중에도 사리판단이 분명한 아이도 있다. 어른처럼 보이지만 어른이라 하지 않는다. 그렇다거 어린이라고 하기에 어색한 모습이다.

너무 웃자란 모습은 애처롭다. 어린이가 어린이답지 못하면 온전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볼 수 없다.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어린이를 빼앗기는 것이다. 어린이를 보호하여 어린이를 지켜주어야 한다

마지막 담임

이 혜 경(수필가)

예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국어 수업 중에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있다. 이 내용을 공부하고 많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업이 끝나려고 할 무렵 프라시아 군의 나팔소리가 울린다. 그 나팔 소리는 더 이상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마지막 통보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고 무척이나 아쉬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 나는 나는” 하고 말을 이어보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는 “프랑스 만세!”라고 칠판에 쓴다. 그 때 나는 프랑스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프랑스 만세!”라고 칠판에 쓰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무척 감동이 되었다.

나는 올해 마지막으로 교직에서의 담임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모국어를 빼앗긴 슬픔에 대한 진올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학급에서는 아주 행복한 끝맺음을 하며 마지막 수업을 하고 싶다. 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진로를 정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이화여대 사범대학을 입학하여 중등 영어 2급과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모두 손에 쥐었으나 나의 운명은 지금까지 초등교사로 살아오게 되었다. 내가 가졌던 시절 흥역을 심하게 앓아 돌잔치도 못하고 일찍 죽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는 호적에 나의 출생신고를 빨리 올리지 않고 계셨다가 기적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자 호적에 늦게 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 서류의 나이는 내 또래들보다 나이가 어리게 나와 있다. 남들은 오히려 나보고 원래 나이보다 직장생활을 더 하게 되어 운이 무척 좋다고 하였다. 나는 이미 교직을 은퇴했어야 할 나이이지만 서류상의 나이로 좀 더 교직 생활을 운이 좋게 연장을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올해 마지막 담임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그런 마음 저리는 슬픈 프랑스 교사의 마지막 수업 모습은 아니지만 나의 마지막 수업은 어떠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실수도 많았고 부끄러운 점도 많았다. 또한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어린 아이들과 지내던 날들은 희노애락이 씨실과 날실처럼 짜여져 있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은 날이었다.

마지막 담임으로 가장 잊지 못할 좋은 담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친절

을 베풀고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담임 즉, 올 한해 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천사 같은 담임으로 정말 후회없이 2020년이라는 한 해를 마지막 담임의 귀한 시간으로 아이들과 마무리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 날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고 칠판에 크고 멋지게 써주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모든 계획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물거품처럼 되어 버렸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코로나19라는 위기로 갑자기 개학을 연장하고 정신없이 원격수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형식을 실전에 터득하고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과 비대면 접촉을 하며 수시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전화상담도 많이 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하다 보니 아이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우리 교사들 역시 온라인 개학 이후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치는 일이 많아졌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담임으로 아이들과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생각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고 멋진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1학기를 그리 저력 힘들게 보내고 짧은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2학기는 일주일에 3~4번 등교할 수 있도록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남은 2학기라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조금씩 쌓아 나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2학기가 되자마자 갑자기 코로나 재확산 숫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아예 초중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는 온라인 전면 원격수업 방식으로 또 결정이 나버렸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역량껏 열심히 살아도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도 해일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게 되어 당연히 여기던 예전 일상의 생활들이 무척 그리워지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며 최근 나는 텅 빈 운동장과 텅 빈 교실에서 방학식도 혼자 하고 개학식도 혼자 하며 화상으로 아이들과 만나며 수업을 혼자 하게 되었다. 마지막 담임 생활을 이렇게 지내리라는 것은 꿈에도 꿈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올해 맡은 학년을 마무리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와 얼떨결에 원하지도 않는 코로나 담임이 되었어도 끝까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하겠다. 가능하면 아이들과 만나는 작은 순간이라도 귀히 여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담임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내 나름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의 책임을 다하리라 마음을 먹는다.